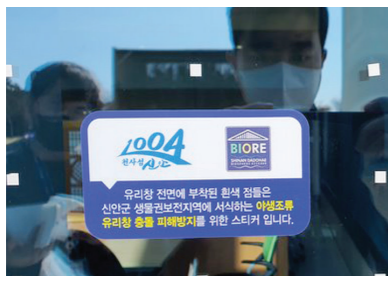


# 신안군,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피해저감 앞장



신안군은 야생조류의 투명유리창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청사 건물 4개동을 대상으로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건물에 설치된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으로 야생조류가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변을 비추는 착시현

## 4개동 1500㎡ 면적에 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전역 확대 추진”

상 때문에 자연환경으로 인식하여 충돌하는 등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조류는 36~72km/h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유리창 충돌 시 큰 부상을 당하거나 폐사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물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야생조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에서는 연간 800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간 10억마리, 캐나다에서는 2,500만마리가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청사에서도 최근 1년 동안 되지뻐귀, 방울새 등 60여마리의 야생조류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 피해 방지를 위해 청사 본관, 보건소, 의회, 별관 등 4개동 1,500㎡ 면적의 유리창에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번에 부착한 스티커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저감방안으로 충돌방지 효과가 국제적으로 입증된 제품이다. 또한 유리표면에 남은 점은 전체면적의 2%로 유리창의 채광, 풍광, 투명성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 맹금류 스티커에 비해 내구성이 높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이외에도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흑산권역을 대상으로 휴경지를 이용해 주민들이 직접 철새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인 압해도 갯벌을 찾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보호펜스를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정지역인 신안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지정·보호하고 있어 서식하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신안군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에 힘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목포시, 깊고 폭넓게 현안사업 대응 마련 ‘3+1’전략 집중 회의의 신설

목포시가 깊고 폭넓은 접근과 검토로 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꾀하고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3대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예비문화도시사업, 목포문학박람회 등 문화예술 분야를 더해 ‘3+1’ 전략을 중심에 놓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고, 다양한 성격의 하위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관계된 부서들의 의견 청취와 협업을 통한 장애요인 해결 등이 필요하다.

이 밖에 여러 부서가 연관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조정하거나 사업간 속도를 조율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시는 당면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이 중심이 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부서장 주재의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기존에 운영해온 협업회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략회의는 월 1회 3대미래전략산업, 문화도시 등 역점사업에 대해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를 다룬다. 전략회의가 포괄적인 주제를 다룬다면 협업회의는 구체적인 특정 사업에 초점을 맞춰 부서간 협업과 조율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수시로 개최한다.

지난 1월에는 갑자옥모자점과 구)호남은행의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한 가운데 2·3월에는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목포역 철도 시설 재배치 사업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종식 시장은 “규모가 크거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같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사업들이 있다. 고하도처럼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중심의 회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무안군, 소규모 영농편익사업 조기 발주

### 총 97개소 41억 원 투입

무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업기반시설분야 소규모 영농편익사업을 조기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취약지역과 지난해 재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군은 총

97개소에 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무안읍 등 9개 읍면 경지정리구간 내 농로와 용·배수로 중 미정비 지역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 11월 말 설계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2월 초 사업을 발주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왕인’ 후보자 추천

영암군은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2021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상징인 ‘왕인’ 후보자를 이달 18일까지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는 영암 출신 또는 영암군민으로서 10년 이상 지역 내에 거주하고 만 55세 이상인 자 중에서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사람 △일정한 학문적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20년 이상 사학에 종사하여

후학 양성에 공헌한 사람을 추천받아 왕인문화축제를 앞두고 매년 ‘왕인’을 선정한다.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상징인 ‘왕인’에 선정되면 축제기간 중 ‘왕인’ 역할을 수행하고 1천 600백여년전 고대 아스카 문화를 꽃피워 일본 학문의 시조로 추앙된 왕인박사의 소훈과 상생의 정신을 선양하게 된다. 영암=조대호기자

## ‘방향타’ 설정 위한 e-모빌리티 사업 설명회 개최

### 영광군, 추진사항·성과 공유...“의견수렴의 장 지속 마련”



영광군은 지난 1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준성 영광군수와 최은영 영광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군청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e-모빌리티 국고사업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e-모빌리티 사업의 추진사항과 성과를 공유하여 사업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광 미래 먹거리 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영광군 주요 e-모빌리티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 노기환 본부장의 발표로 e-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전망, 주요사업 설명 및 추

진 성과보고, 신규사업 설명 및 추진 계획 보고, 영광 e-모빌리티 산업 확장을 위한 전략과 비전 제시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설명회 이후 참여자들 간 자유토론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을 바라보는 군청 안팎의 다양한 시각을 확인하고 영광 e-모빌리티 산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성 군수는 “2014년 e-모빌리티 산업을 영광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첫 삽을 뜬 이래로 현재까지 11개 사업 2,800억 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명실상부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성장해온 만큼 우리군 e-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e-모빌리티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와 영광 e-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의견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리”라고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 함평군, 농축특산물 통합브랜드 유통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함평군이 관내 농축특산물의 생산·유통 체질 개선을 위해 ‘함평군 농축특산물 통합브랜드 유통활성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에 나섰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중장기 계획은 올해 군이 선정한 3대 비전

중 하나로, 함평군 지역에 가장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의 선정·육성을 통한 명품농산물 생산과 산지유통조직 육성 등 유통체계 정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계획에 농협과 농업법인이 중심이 된 산지유통조직 육성과 권

역별 산지유통시설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농축특산물 브랜드 관리 및 고품질화도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유통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일 활력 넘쳐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임대료 인하  
적극 임대인  
함평2지구 상가 상인회

친환경 마스크